

오카야마시장 메일 매거진(130) 레이와 2년 10월 16일호

【시민의 생활을 지탱하는 대중교통의 유지·확충】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얼마 전 오카야마시의 대중교통 편리성 향상에 대해 논의하는 「제7회 대중교통망 형성 협의회」를 개최해 시내 노선버스의 유지·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버스 사업자 및 이용자 등과 협의했습니다.

앞으로 인구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는 사회를 맞이하는 가운데 오카야마시가 미래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중심부에서는 도시 전체의 경제·교류 활동을 견인하기 위해 고도의 도시적 서비스 기능을 집약한다
- 각 지역의 거점에서는 의료·복지·상업 등 친밀한 생활 서비스 기능을 충실히 한다
- 그리고 중심부, 지역의 거점, 지역의 일상생활권 내 각 지역을 편리한 대중교통 등으로 연결한다

이러한 도시 조성을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 ① 중심부를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 곳으로 바꾸고, 지역거점의 기능을 높이고 활성화하여 일상생활의 내실을 도모해 가는 것
- ② 중심부, 지역 거점의 활기를 주변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누릴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
- ③ 주변부에서의 일상생활을 뒷받침하는 생활교통을 확보하는 것

이상의 3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심부로 눈을 돌려 보면 시가지 재개발 등의 민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오카야마시에서도 활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현청대로의 1차선화와 오카야마 예술창조극장의 정비, 오카야마역 앞 노면전차 승강장 도입 등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씨를 뿌려 온 것이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중교통을 둘러싼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노선버스 운행구간의 총 연장은 약 26%나 감소했으며, 최근 2년간만 해도 180번 국도 이용이 중단되어 도심과 주변부를 잇는 10개 이상의 주요 노선이 감편되었습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이용자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어 시민의 중요한 이동 수단인 대중교통을 지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속도감을 가지고 대중교통의 유지·확충을 실현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협의회에서는

- ① 중복 노선의 집약 등에 의해 운영을 효율화하는 '노선 재편'
- ②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사업자의 수익 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는 '중심부 운임 조정'
- ③ 시의 부담에 의한 고령자·장애인의 '운임 할인(반액 할인)'

이상의 세 가지 큰 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가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버스 사업자간의 의견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노선버스의 유지에 대해서는 「유예 없음」의 상황으로, '이대로는 시민의 소중한 이동 수단을 지킬 수 없다,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각 버스 사업자와는 지금까지 3년 가까이 논의를 계속해 몇 번이나 절충을 거듭해 왔기때문에 각 사업자도 오카야마시의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

로 생각합니다.

이번 협의회에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의견들을 조율해 다음 협의회에서는 모든 사업자의 합의를 목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 교통의 충실에 대해서도 한층 더 깊은 논의를 거듭하여 2021년도 (레이와 3년도)부터 이러한 대중교통 대책을 실행에 옮겨 가고자 합니다.